

Wage Income Tax Reforms and Changes in Tax Burden: 2000–2009

2012. 6. 7

장 기 재 정 전 망 센 터



< 요약 >

□ 임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고용주의 노동사용 비용에 동시에 영향을 미쳐 노동공급 및 수요 형성의 주요 요인이 되며, 소득수준과 가구형태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어 소득 재분배에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함

□ 본 보고서는 상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0년과 2009년 사이 OECD 30개 국가의 조세격차(Tax wedge^{*})를 측정하여 임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봄

○ 또한 소득수준별 및 가구형태별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시점 간, 국가 간, 소득수준 간, 가구형태 간의 세부담 비교를 동시에 수행함

* 조세격차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가계현금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담을 측정한 지표

□ 무자녀 독인가구의 OECD 평균 조세격차는 2000년 37.8%에서 36.4%로 1.4%p 감소하였고, 다른 가구형태에서도 지난 9년간 조세격차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낮은 소득구간의 가구가 더 큰 조세격차 감소 혜택을 누렸으며, 이는 모든 가구형태에서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남

□ 무자녀-2자녀 및 독신-부부 가구의 조세격차 차이를 통해 자녀양육 및 결혼에 따른 세제혜택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양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며 지난 9년간 세제혜택의 증감 여부는 국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의 조세격차를 보이며,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조세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동 기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목소득의 증가가 빨랐던 반면 과표 구간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도 이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비교 결과를 보면, 자녀양육에 대한 세제혜택(외벌이 부부 가구 기준)은 2000년 0.72%에서 2009년 1.77%로 증가하였으며, 결혼에 대한 세제혜택(무자녀 기준)은 -0.03%에서 0.66%로 증가하였음
- 자녀양육 및 결혼에 대한 세제혜택의 정도는 2009년 OECD 평균 15.54%, 3.23%에 비해 낮은 값이나, 지난 9년간 증가폭은 OECD 평균보다 더 큼
- 다른 나라의 조세격차 측정치는 정부로부터의 현금급여(Cash Benefit)를 반영한 반면 우리나라의 조세격차 측정치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서 다른 나라와의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 현금급여의 자료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조세격차는 본 OECD보고서의 결과보다 더 작고, 세제혜택은 더 클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소득재분배가 직접세보다는 정부지출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현금급여 누락은 조세격차 변화 분석결과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1. 서론

□ (연구배경) 근로에 대한 세부담은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소득재분배에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므로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임금소득에 대한 과세는 근로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지불급여세(payroll tax)* 등의 형태로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이루어짐

- 따라서, 임금소득세는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고용주의 노동사용 비용에 동시에 영향을 미쳐 노동공급과 수요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

○ 또한 임금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수준별 및 가구형태별로 다르게 부과되어 소득의 재분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함

*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 호주,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웨덴의 통계에 포함됨 (우리나라에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제외)

□ 본 보고서는 2000년과 2009년 사이 OECD 30개 국가의 임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세제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 분석함

○ 또한 평균임금의 50%~250% 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각 구간별로 측정하여 소득수준별 세부담 차이를 살펴보고,

○ 총 6개의 가구 형태(독신, 2자녀 한부모, 무자녀·2자녀 외벌이 부부, 무자녀·2자녀 맞벌이)로 나눠서 각각의 임금소득 세부담 변화 추이를 분석함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세부담의 1) 시점 간 비교, 2) 국가 간 비교, 3) 소득수준 간 비교, 4) 가구 형태 간 비교가 동시에 이루어짐

□ 시점 간 세부담 차이는 조세개혁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물가 상승 및 실질소득 변화의 영향도 받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보통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물가 상승 및 실질소득 성장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함 (과세구간이 조정되었을 경우 제외)

○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경제성장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이루어졌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하여야 함

□ 세부담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조세격차(Tax Wedge)를 사용함*

- 세부담의 변화는 여러 분야의 정책(소득세 인상, 현금급여 삭감 등)을 동시에 반영하므로 그 원인을 분석할 때 각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

* 참고: 조세격차

- 조세격차는 고용자의 근로비용과 피고용자의 세후소득 간 차이를 근로비용에 대한 비율로서 소득세 이외에 사회보장기여금, 가계현금급여 등도 반영된 값

$$Tax\ Wedge(\%) = \frac{T + SSC_{ee} - FCB + PT + SSC_{er}}{In + PT + SSC_{er}} \times 100$$

여기서, T는 소득세, SSC_{er} , SSC_{ee} 는 각각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FCB는 가계현금급여, PT는 지불급여세, In은 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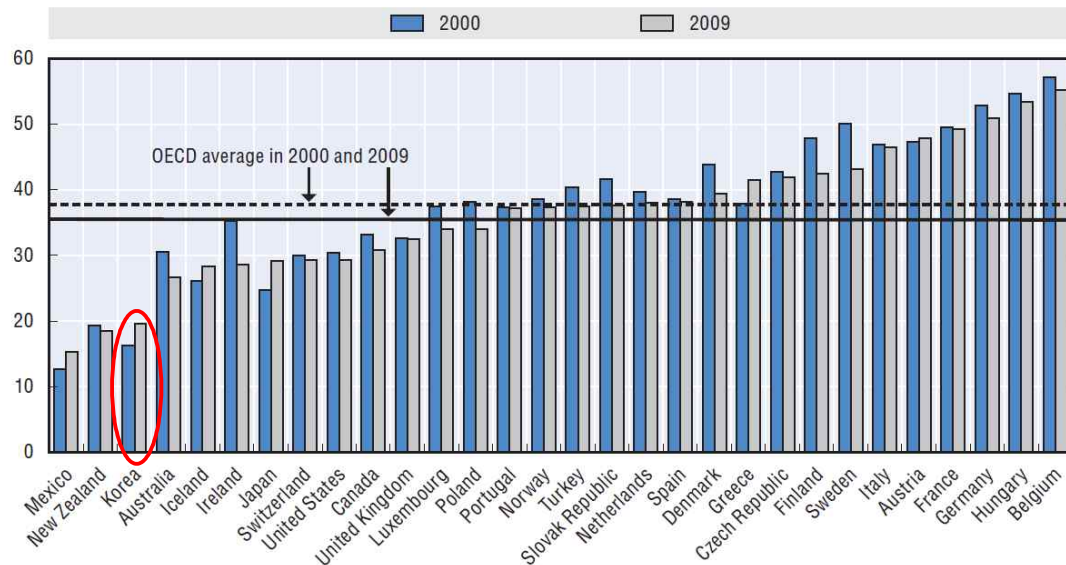
2. 임금소득에 대한 조세격차 변화 추이

2.1 무자녀 독신 가구

□ 무자녀 독신 가구에 대한 OECD 평균 조세격차는 2000년 37.8%에서 2009년 36.4%로 조금 감소하였음

- 조세격차는 각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며, 2009년 기준 멕시코가 15.3%로 최저, 벨기에가 55.2%로 최고 조세격차를 보임
-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격차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멕시코,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 등 OECD 평균보다 낮은 국가에서는 조세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예외적으로 OECD평균을 상회하는 그리스에서 조세격차 증가가 일어남
-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 조세격차가 2000년 16.3%에서 2009년 19.7%로 3.4%p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하여 낮게 나타남

Figure S.1. **Average tax wedge for single taxpayers at average earnings without children in 2000 and 2009¹**



1. Average tax wedges for 2010 can be found in Table I.1 in this Repor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79062>

출처: OECD, 『Taxing Wages 2009-2010』, 2011

- 조세격차 변화 양상을 소득수준 별로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의 조세격차 감소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임
- OECD 평균을 보면 평균임금의 50-80% 구간에서는 조세격차가 2.1%p의 감소하여 1.2%p~1.3%p의 감소를 보인 다른 구간에 비해 더 큰 감소폭을 보임
- 한국, 영국, 그리스, 일본 등에서는 2000-2009 기간에 조세격차가 증가하였고, 일본에서 3.9%p의 가장 큰 증가가 나타남
 - 한국의 경우 낮은 소득구간에서 오히려 더 큰 조세격차 증가가 일어났고, 최상위 소득구간(180~250%)에서 0.4%p의 가장 작은 증가가 일어남

<표1> 주요국 소득수준에 따른 2000-2009 조세격차 변화 정도, 독신 가구

	50-250% ¹⁾	50-80%	80-130%	130-180%	180-250%
한 국	1.9%	2.7%	3.2%	2.4%	0.4%
미 국	-1.9%	-1.4%	-1.5%	-2.2%	-2.2%
영 국	0.8%	0.1%	0.1%	1.2%	1.2%
호 주	-5.4%	-4.7%	-4.4%	-5.8%	-6.0%
캐나다	-2.6%	-1.8%	-2.2%	-2.5%	-3.2%
독 일	-3.1%	-1.4%	-2.3%	-3.2%	-4.4%
스웨덴	-5.4%	-7.4%	-7.0%	-5.2%	-3.6%
그리스	2.4%	1.4%	3.4%	2.5%	2.0%
아일랜드	-3.5%	-4.5%	-6.1%	-3.7%	-1.0%
일 본	3.9%	4.3%	4.4%	4.1%	3.3%
OECD평균 (표준편차)	-1.4% (2.6%)	-2.1% (3.3%)	-1.3% (2.9%)	-1.2% (2.7%)	-1.3%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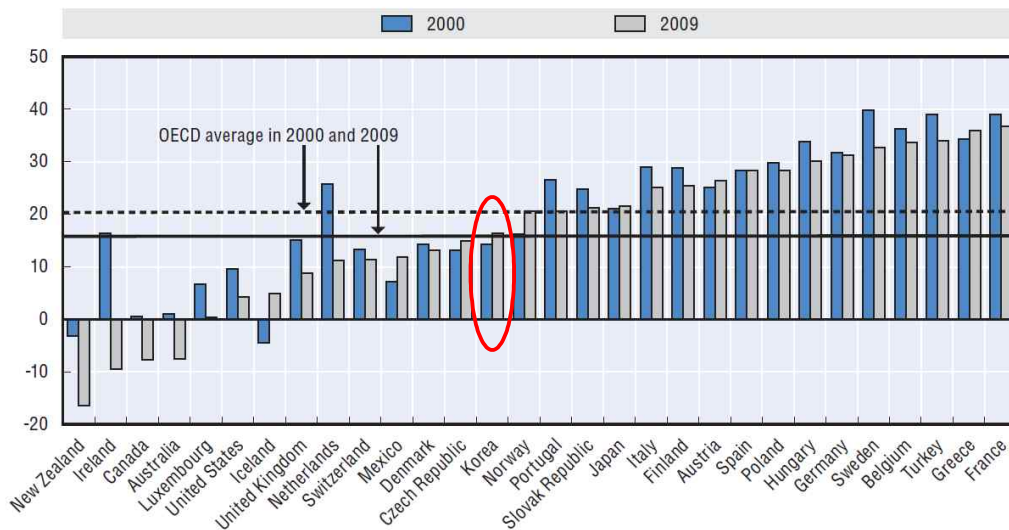
1) 평균임금에 대한 비율

출처: OECD, 『Taxing Wages 2009-2010』, 2011

2.2 2자녀 한부모 가구

- 평균임금의 67% 소득자 대상 조세격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0-2009년에 OECD국가 평균 3.5%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00년 20.4%, 2009년 16.9%)
 - 뉴질랜드, 아일랜드, 호주에서 가장 큰 감소가 일어났는데, 이는 소득세율 인하와 현금급여(Cash Benefit) 확대에서 기인함
 - 한국의 경우 조세격차가 2000년 14.3%에서 2009년 16.4%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Figure S.5. **Average tax wedge for single parents with 2 children at 67% of the AW in 2000 and 2009¹**



1. Average tax wedges for 2010 can be found in Table I.1 in this Report. See also Table II.1a.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79138>

출처: OECD, 『Taxing Wages 2009-2010』, 2011

□ 2자녀 한부모 가구에 대한 2000-2009년 조세격차 변화 정도를 소득수준 별로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저소득층 구간에서 조세격차 감소폭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 저소득층 구간에서 가장 큰 조세격차 감소를 보인 국가는 아일랜드이며, 영국에서는 저소득자의 조세격차가 감소한 반면 고소득자의 조세격차는 증가함
- 우리나라에서는 대조적으로 저소득층의 조세격차가 증가하고 180-250% 고소득층의 조세격차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2> 주요국 소득수준에 따른 2000-2009 조세격차 변화 정도, 2자녀 한부모

	50-250% ¹⁾	50-80%	80-130%	130-180%	180-250%
한 국	1.1%	1.8%	2.1%	1.8%	-0.3%
미 국	-2.8%	-5.6%	-3.2%	-2.3%	-1.5%
영 국	-0.4%	-6.5%	-1.0%	1.0%	1.5%
호 주	-8.2%	-14.4%	-10.2%	-7.4%	-4.8%
캐나다	-5.1%	-9.0%	-5.0%	-4.0%	-4.4%
독 일	-1.5%	-0.3%	-1.1%	-1.7%	-2.2%
스웨덴	-5.3%	-7.1%	-6.8%	-5.1%	-3.5%
그리스	2.1%	1.4%	3.1%	2.4%	1.5%
아일랜드	-11.1%	-25.8%	-13.5%	-8.8%	-4.6%
일 본	2.3%	0.3%	2.0%	2.7%	3.1%
OECD평균 (표준편차)	-2.1% (3.5%)	-3.9% (6.8%)	-2.1% (4.4%)	-1.7% (3.2%)	-1.6% (3.8%)

1) 평균임금에 대한 비율

출처: OECD, 『Taxing Wages 2009-2010』, 2011

□ 자녀 유무에 따른 1인 소득자 가구의 조세격차 차이를 보면,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2자녀 가구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 2009년 기준 무자녀와 2자녀 가구간 조세격차 차이는 멕시코에서 0%로 가장 낮고, 캐나다에서 27.3%로 가장 높음

○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조세격차 차이가 0.6%로 OECD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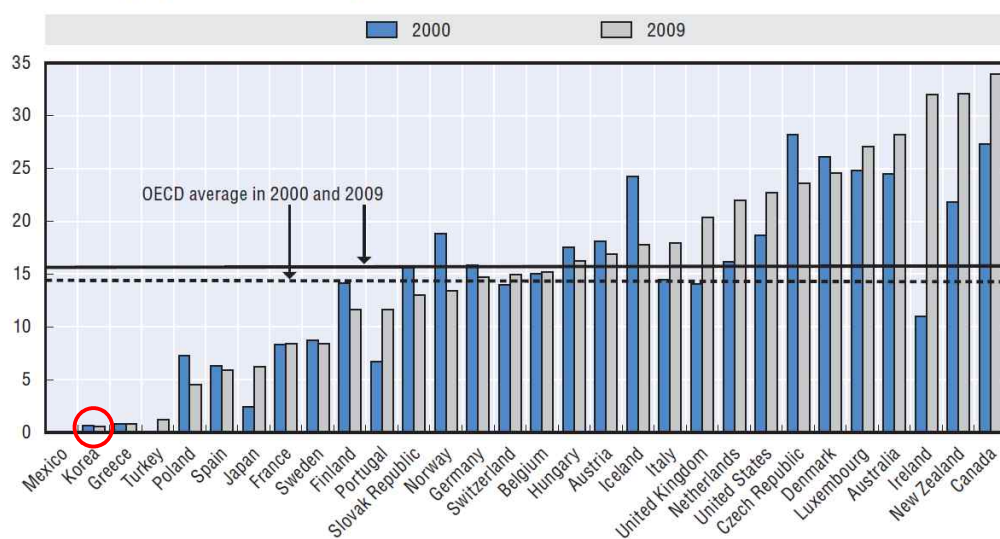
* 무자녀 독신가구와 2자녀 한부모 가구의 조세격차를 비교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세제혜택의 정도를 측정하였음

□ 2000년과 2009년을 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 세제혜택의 정도가 증가하였고(OECD 평균 2000년 14.1%, 2009년 15.5%), 29개국 중 16개 국가에서 세제혜택 정도가 증가하였고, 13개 국가에서 감소하였음

○ 아일랜드,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지난 8년간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2009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0.6% 정도의 수준을 유지함

Figure S.10. Tax wedge difference without/with children: single taxpayers and single parents earning 67% of the AW in 2000 and 2009^{1, 2}



1. The tax advantage is shown in per cent of total labour costs and is calculat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ax wedge faced by a single taxpayer without children and a single parent with 2 children.
2. Information on average tax wedges for 2010 can be found in Table I.1 in this Repor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79233>

출처: OECD, 『Taxing Wages 2009-2010』, 2011

2.3 무자녀 외벌이 부부 가구

□ 무자녀 외벌이 부부 가구의 경우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OECD 평균 1.4%p의 조세격차 감소를 보임

○ 우리나라는 평균소득의 80-130% 계층 가구에서 조세격차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180-250% 계층 가구에서는 오히려 조세격차가 감소하였음

<표3> 주요국 소득수준에 따른 2000-2009 조세격차 변화 정도, 무자녀 외벌이 부부

	50-250% ¹⁾	50-80%	80-130%	130-180%	180-250%
한 국	1.4%	1.7%	2.6%	1.9%	-0.1%
미 국	-2.8%	-3.2%	-2.7%	-2.0%	-3.4%
영 국	0.8%	0.0%	0.1%	1.2%	1.2%
호 주	-5.4%	-5.7%	-4.4%	-5.8%	-5.8%
캐나다	-3.2%	-3.8%	-2.8%	-2.9%	-3.4%
독 일	-1.8%	-0.3%	-1.3%	-2.6%	-2.3%
스웨덴	-5.4%	-7.4%	-7.0%	-5.2%	-3.6%
그리스	2.4%	2.1%	3.5%	2.7%	1.7%
아일랜드	-0.6%	-2.4%	-2.9%	-0.4%	1.6%
일 본	4.8%	5.3%	5.2%	4.9%	4.0%
OECD평균 (표준편차)	-1.4% (2.9%)	-2.5% (3.5%)	-1.6% (3.2%)	-1.1% (3.0%)	-1.0% (3.2%)

1) 평균임금에 대한 비율

출처: OECD, 『Taxing Wages 2009-2010』,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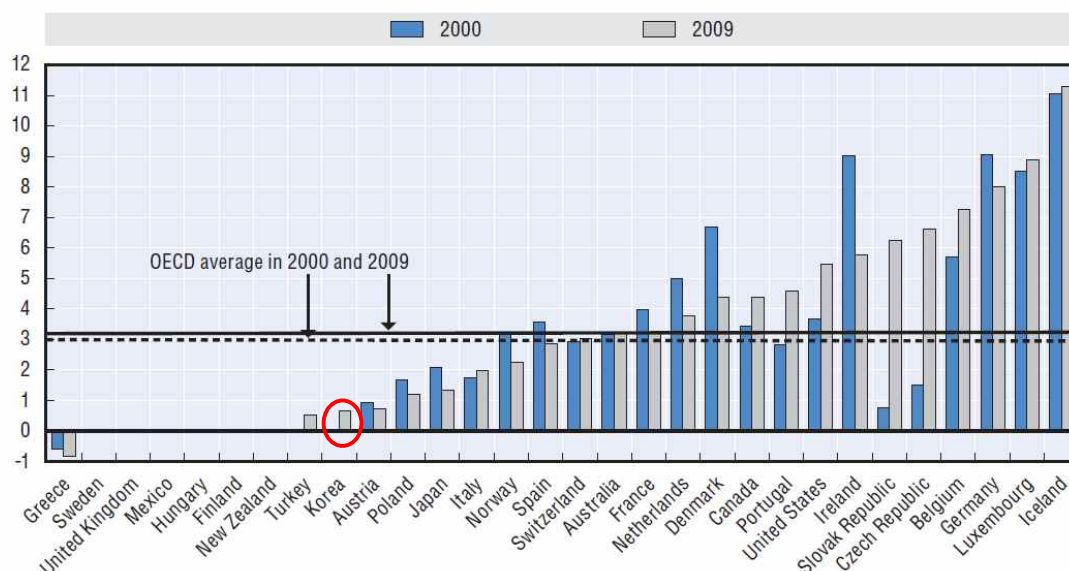
□ 독신 납세자가 결혼하였을 경우 OECD 평균 약 3%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아이슬란드에서 세제혜택 정도가 11%로 가장 높음

○ 스웨덴, 영국, 멕시코 등 결혼에 따른 조세격차 감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국가도 있었으며, 그리스에서는 결혼할 경우 오히려 조세격차가 증가함

○ 2000년과 2009년 사이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 큰 폭의 세제혜택 증가가 있었는데, 이는 외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세 인하에서 기인함

○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세제혜택이 전혀 없었으나 2009년 0.7%로 소폭 증가함

Figure S.14. Tax wedge reduction when being married to a partner without wage income: single taxpayers versus one-earner married couples at average wage earnings without children in 2000 and 2009, in percentage points^{1, 2, 3}



1. The tax advantage is shown in per cent of total labour costs and is calculat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ax wedge faced by a single taxpayer and a one-earner married couple at average earnings without children.
2. Information on average tax wedges for 2010 can be found in Table I.1 in this Report.
3. In Greece, married taxpayers working in the private sector may earn up to 10% of additional income compared to single taxpayers. This additional income, however, could not be separated from other gross earnings and has therefore been taken into account when calculating the taxes that have to be paid by married couples. This biases the analysis in this chart for Greece. For more information, see the 2009 edition of the Taxing Wages Repor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79309>

출처: OECD, 『Taxing Wages 2009-2010』, 2011

2.4 2자녀 외벌이 부부 가구

□ 자녀가 둘 있는 외벌이 부부 가구의 경우 OECD 평균 조세격차는 2000년과 2009년 사이에 2.1%p 감소하였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50-80%의 저소득 가구에서 조세격차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고소득 가구로 갈수록 감소의 폭이 줄어들음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8년간 전체적으로 조세격차가 증가하였으나 평균소득의 180-250%를 받는 고소득 가구 구간에서는 조세격차가 소폭 감소하였음

<표4> 주요국 소득수준에 따른 2000-2009 조세격차 변화 정도, 2자녀 외벌이 부부

	50-250% ¹⁾	50-80%	80-130%	130-180%	180-250%
한 국	0.9%	1.7%	1.8%	1.7%	-0.5%
미 국	-5.3%	-11.0%	-6.1%	-3.2%	-3.6%
영 국	-0.8%	-7.2%	-1.5%	0.7%	1.3%
호 주	-7.2%	-11.9%	-9.1%	-6.6%	-4.3%
캐나다	-5.5%	-10.7%	-5.4%	-4.0%	-4.4%
독 일	-2.2%	-1.3%	-2.0%	-3.0%	-2.3%
스웨덴	-5.3%	-7.1%	-6.8%	-5.1%	-3.5%
그리스	2.1%	2.1%	3.1%	2.5%	1.2%
아일랜드	-6.7%	-22.4%	-8.4%	-3.7%	-0.8%
일 본	2.9%	0.9%	2.7%	3.2%	3.8%
OECD평균 (표준편차)	-2.1% (3.3%)	-4.5% (6.1%)	-2.5% (4.0%)	-1.6% (3.1%)	-1.2% (3.3%)

1) 평균임금에 대한 비율

출처: OECD, 『Taxing Wages 2009-2010』,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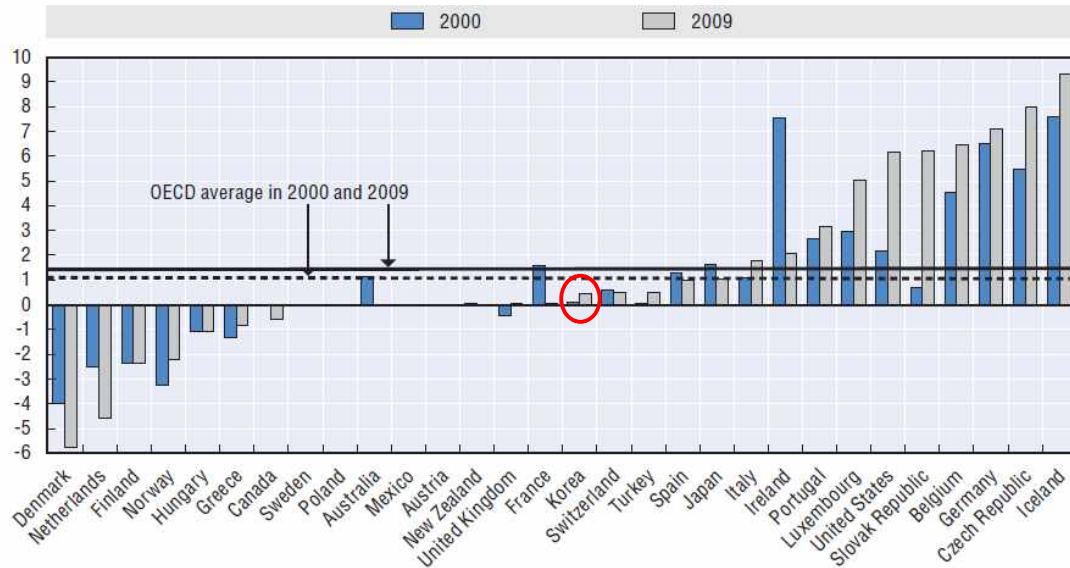
□ 2자녀 한부모 가구와 2자녀 외벌이 부부 가구를 비교하였을 때, 조세격차의 차이가 국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임

○ OECD 평균에서는 2자녀 외벌이 부부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 1.4%), 한부모 가구에 더 큰 혜택을 주는 국가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임

-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세제상 한부모 가구가 유리한 반면, 미국, 독일, 아이슬란드 등에서는 외벌이 부부 가구가 유리함

○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구형태에 대한 세제혜택에 큰 차이가 없으나 최근에 외벌이 부부 가구에 대한 혜택이 소폭 상승하였음 (2000년 0.1%, 2009년 0.5%)

Figure S.16. **Tax wedge reduction when being married to a partner without wage income: Single parents versus one-earner married couples at average wage earnings with 2 children in 2000 and 2009, in percentage points^{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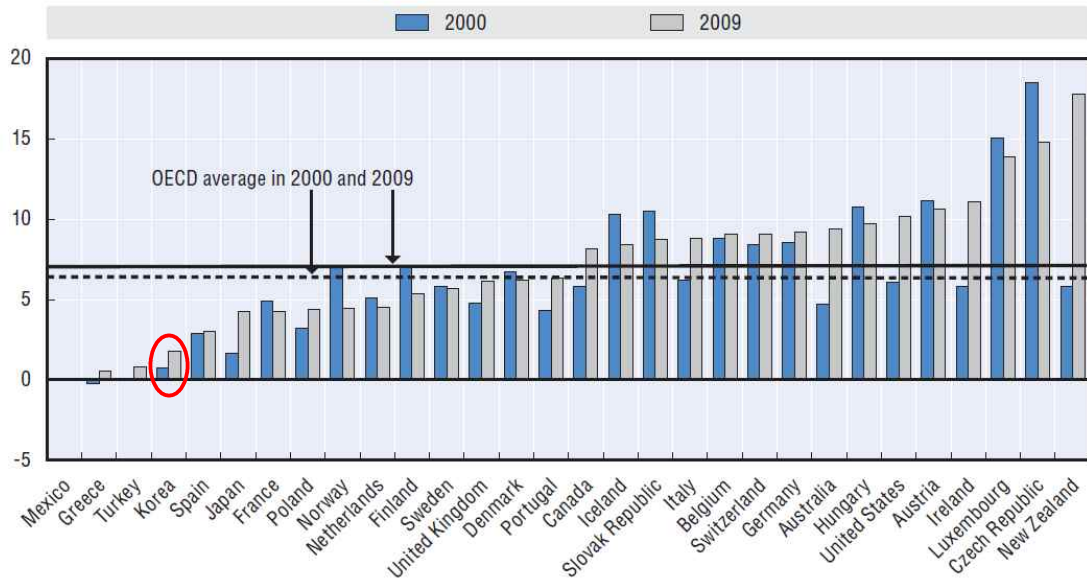
1. The tax advantage is shown in per cent of total labour costs and is calculat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ax wedge faced by a single parent at average wage earnings with 2 children and a one-earner married couple at average earnings with 2 children.
2. Information on average tax wedges for 2010 can be found in Table I.1 in this Report.
3. In Greece, married taxpayers working in the private sector may earn up to 10% of additional income compared to single taxpayers and parents may earn up to 5% of additional income for each child. This additional income, however, could not be separated from other gross earnings and has therefore been taken into account when calculating the taxes that have to be paid by married couples. This biases the analysis in this chart for Greece. For more information, see the 2009 edition of the *Taxing Wages Repor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79347>

출처: OECD, 『Taxing Wages 2009-2010』, 2011

- 무자녀-2자녀 외별이 부부에 대한 조세격차 차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2자녀 가구에 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멕시코 제외)
-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에서는 2009년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0.7%에서 2009년 1.8%로 조세격차 차이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OECD 평균 7.2%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임

Figure S.17. **Tax wedge difference without/with children:**
One-earner married couples at average wage earnings in 2000 and 2009^{1, 2}



1. The tax advantage is shown in per cent of total labour costs and is calculat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ax wedge faced by a one-earner married couple without children and a one-earner married couple with 2 children.
2. Information on average tax wedges for 2010 can be found in Table I.1 in this Repor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79366>

출처: OECD, 『Taxing Wages 2009-2010』, 2011

2.5 맞벌이 부부 가구

- 맞벌이 부부 가구의 경우, OECD 평균 조세격차는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1.3%p(무자녀), 1.6%(2자녀) 감소하였음
- 각 소득수준 구간별로 조세격차 변화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많은 국가에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조세격차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주어진 기간에 조세격차가 증가하였고, 무자녀 가구에 대한 조세격차 증가가 2.3%p로 2자녀 가구 1.6%p 보다 더 크게 나타남
 - 또한 저소득 구간의 조세격차 증가율이 고소득 구간의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5> 주요국 소득수준에 따른 2000-2009 조세격차 변화 정도, 맞벌이 부부

	150-350% ¹⁾		150-180%		180-230%		230-280%		280-350%	
	무자녀	2자녀	무자녀	2자녀	무자녀	2자녀	무자녀	2자녀	무자녀	2자녀
한 국	2.3%	1.6%	2.7%	1.7%	3.1%	2.3%	2.6%	2.1%	1.2%	0.6%
미 국	-2.8%	-2.9%	-1.1%	-2.1%	-2.7%	-2.7%	-3.3%	-3.9%	-3.2%	-2.8%
영 국	0.5%	0.5%	0.0%	-0.3%	0.0%	0.1%	0.7%	0.8%	0.8%	0.8%
호 주	-4.8%	-3.8%	-4.2%	-4.2%	-4.1%	-2.7%	-5.0%	-3.9%	-5.3%	-4.4%
캐나다	-2.5%	-3.2%	-2.1%	-3.2%	-2.3%	-3.3%	-2.5%	-3.0%	-2.9%	-3.3%
독 일	-2.4%	-2.4%	-1.8%	-2.2%	-2.2%	-2.2%	-2.6%	-2.6%	-2.7%	-2.5%
스웨덴	-5.9%	-5.9%	-7.1%	-7.0%	-7.0%	-6.9%	-5.9%	-5.8%	-4.7%	-4.6%
그리스	3.1%	2.8%	3.4%	3.3%	3.8%	3.5%	3.3%	3.1%	2.5%	2.0%
아일랜드	-4.6%	-7.1%	-5.5%	-9.0%	-6.5%	-9.3%	-4.8%	-7.1%	-2.7%	-4.6%
일 본	4.1%	3.3%	4.4%	2.9%	4.4%	3.2%	4.2%	3.4%	3.7%	3.5%
OECD평균 (표준편차)	-1.3% (2.6%)	-1.6% (2.8%)	-1.5% (2.9%)	-2.1% (3.2%)	-1.3% (2.8%)	-1.7% (3.2%)	-1.2% (2.7%)	-1.5% (2.9%)	-1.2% (2.7%)	-1.4%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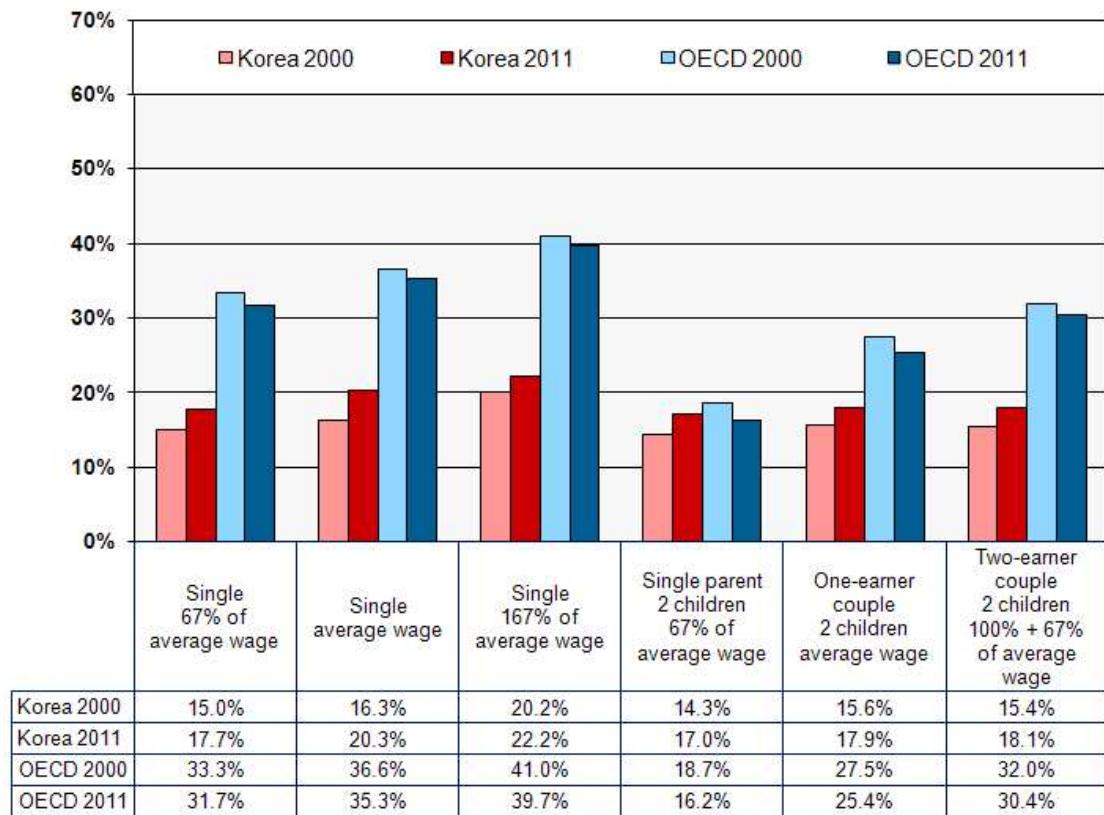
1) 아내의 임금은 평균수준(100%)으로 고정, 남편의 임금은 평균의 50~250% 변동
출처: OECD, 『Taxing Wages 2009-2010』, 2011

3. 우리나라 사례 요약

-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가구 형태에서 2000년에서 2011년* 사이 조세격차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평균 임금을 받는 독신 납세자의 경우, 조세격차가 2000년 16.3%에서 2009년 20.3%로 4%p 증가하였음
 - 이는 같은 해 OECD 국가 평균 조세격차(36.6%, 35.3%)에 비해 각각 20.3%p, 15.0%p 작은 값임
- 예외적으로 2자녀 한부모 가구의 경우 2011년 기준 18.7%로 OECD 평균인 16.2%보다 더 높은 값을 보임
- 독신 가구 조세격차는 OECD 국가 평균과의 차이가 큰 반면 2자녀 가구 및 부부 가구의 경우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자녀양육 및 결혼에 대한 세제혜택이 크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음

* 최근 발간된 『Taxing Wages, 2011』 (2012. 4)를 참고하여 최신값으로 업데이트

<그림1> 우리나라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2000,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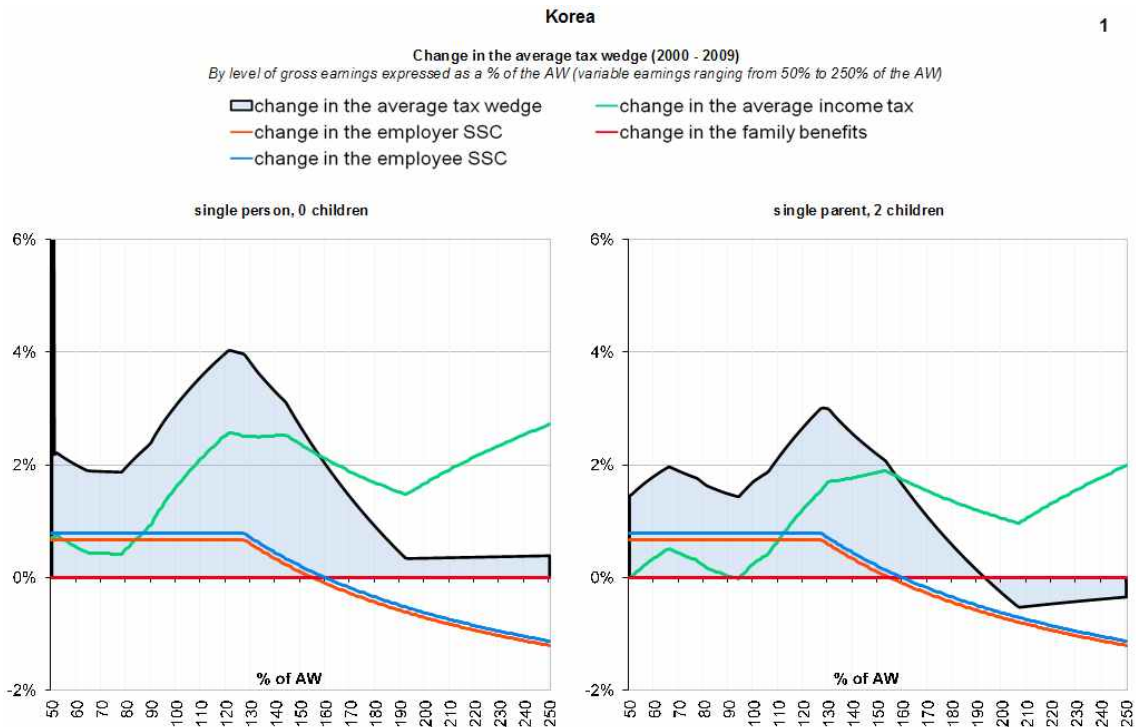
출처: Taxing Wages, Country note for Korea

http://www.oecd.org/document/31/0,3746,en_2649_34533_47426655_1_1_1_1,00.html

□ 2000-2009 소득 수준별 조세격차 변화를 요소별로 보면,

-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에 중간소득구간 (80~130%)의 조세격차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 고소득 구간에서의 조세격차 증가율이 저소득 구간에서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양상은 모든 가구 형태에서 유사하게 나타남

<그림2> 우리나라 2000-2009 조세격차 변화 정도, 1인 납세자 가구



출처: Taxing Wages, Country note for Korea

http://www.oecd.org/document/31/0,3746,en_2649_34533_47426655_1_1_1_1,00.html

<그림3> 우리나라 2000-2009 조세격차 변화 정도, 외벌이 부부 가구



출처: Taxing Wages, Country note for Korea

http://www.oecd.org/document/31/0,3746,en_2649_34533_47426655_1_1_1_1,00.html

□ 마지막으로 가구형태에 따른 세제혜택 정도를 보면,

- 자녀 양육에 따른 조세격차 차이는 2009년 1인 납세자 0.59%, 외벌이 부부 1.77%로 OECD 평균인 15.54%, 7.22%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 2009년 외벌이 부부에 대한 세제혜택은 2000년에 비해 1.05%p 증가한 반면, 1인 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소폭 감소함
- 자녀가 없는 납세자가 결혼 할 경우 2009년 기준 0.66%의 세제혜택을 받으며, 이는 2000년의 -0.03%에 비해 0.69%p 상승한 값임
- 2자녀 한부모 가구와 2자녀 외벌이 부부 가구를 비교한 결과 외벌이 부부 가구의 조세격차가 0.47%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단, 여러 국가에서 세제혜택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금급여”가 우리나라 통계에서 누락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실제 세제혜택은 더 클 가능성이 높음을 유의하여야 함

- 특히, 직접세보다는 정부지출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현금급여 누락은 분석 결과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침

<표6> 우리나라 2000-2009 가구형태에 따른 조세격차 차이¹⁾

(단위: %)

구분		2000 (A)	2009 (B)	B-A
무자녀 對 2자녀 ²⁾ (1인 납세자)	우리나라	0.64	0.59	-0.05
	OECD 평균	14.06	15.54	1.49
무자녀 對 2자녀 ³⁾ (외벌이 부부)	우리나라	0.72	1.77	1.05
	OECD 평균	6.34	7.22	0.88
독신 對 외벌이 부부 ⁴⁾ (무자녀)	우리나라	-0.03	0.66	0.69
	OECD 평균	2.99	3.23	0.24
한부모 對 외벌이 부부 ⁵⁾ (2자녀)	우리나라	0.12	0.47	0.35
	OECD 평균	1.09	1.38	0.29

1) 가구형태별 조세격차의 차이는 자녀양육 및 결혼에 따른 세제혜택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

2) 평균임금의 67%를 받는 무자녀 독신 가구와 2자녀 한부모 가구의 조세격차 차이

3) 평균임금을 받는 무자녀 외벌이 부부 가구와 2자녀 외벌이 부부 조세격차 차이

4) 평균임금을 받는 무자녀 독신 가구와 무자녀 외벌이 부부 조세격차 차이

5) 평균임금을 받는 2자녀 한부모 가구와 2자녀 외벌이 부부 조세격차 차이

출처: OECD(2011), 『Taxing Wages 2009-2010』, 우리나라 경우만 재정리